

2026 추석 가정예배

묵상기도 _____ 다같이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_____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_____ 다같이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4절 · 각 절 뒤에 후렴을 부릅니다.

대표기도 _____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_____ 빌립보서 4장 6-7절 _____ 담당자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 교 _____ 담당자(뒷면참조)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대표기도 예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짐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남은 한 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기쁨과 예배의 은혜가 깊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선한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정 / 빌립보서 4장 6-7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풍성한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활의 문제, 자녀의 앞날과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염려를 홀로 짊어지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모른 척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억지로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날을 견디게 하신 은혜, 필요한 순간에 보내 주신 도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돌아봅시다. 염려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앞날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평강을 바라며 우리 가족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성급히 판단하거나 답을 주려 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들어 줍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로 동행할 때,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명절이 지난 뒤에도 그 제목을 기억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주십시오. 남은 한 해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